

## 마 영여자 싹틔워 트레이 육묘 생산 기간 줄이고 비용도 절감

마의 생산비를 크게 줄이는 생산기술이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 해안농업시험장(장장 사종구)은 마의 영여자를 트레이 육묘로 재배해 당해에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여자는 마의 줄기에 맺히는 열매로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영여자를 7~8월에 수거해 직파한 후 수확해 이듬해 정식, 출하까지 2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트레이육묘 방법은 30°C에서 10일간 싹을 틔워 파종한 후 45일 동안 트레이 육묘하여 직접 정식할 경우 당

해에 상품성이 있는 마를 절편재배할 때의 70% 수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는 전체 생산비 가운데 종묘비가 40% 정도를 차지해 트레이 육묘법으로 재배할 때에는 경영비의 45%까지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기선 작물연구담당은 “영여자를 트레이 육묘할 경우 정식할 때 구의 무게가 2g 이상돼 수량과 수익이 직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여자 트레이 육묘 기술을 활용하면 농가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안농업시험장은 그동안 동해안지역에서 주로 재배됐던 감자와 단무지용 무가 연작으로 지력이 악화돼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동해안 밭작물 특성화 연구의 일환으로 마 영여자 트레이 육묘법을 연구해왔다.

☎033-648-2521.

## 업나무 순 새 소득작목 육성 충북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한약재 등으로 질병 치유 효과와 함께 기호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업나무(읍나무, 개두릅) 순이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된다.

충북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참두릅 살수(撒水-물 뿌림) 재배기술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업나무 순 수침(水浸) 재배 기술 개발에 나섰다. 기술센터는 시험연구포 유리온실에 비닐을 깔 뒤 물과 펄라이트, 마사토로 만든 배지에 휴면 중인 업나무

순을 30cm 길이로 잘라 세워 꽂고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수침 살수형 재배 방식을 적용했다. 또 양질의 업나무 순을 조기에 생산하기 위해 생장조절제도 다양하게 처리하는 등 갖가지 시험 재배를 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이 같은 시험 재배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 농가 실증 시험을 실시한 뒤 농가 소득작목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업나무는 15-25m까지 성장하고 가시가 있으며 순은 풍증과 골절 치유, 근육 이완, 안질, 피부병 등에 효능이 있고 맛과 향, 영양이 풍부해 미식가들의 기호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 <더덕·천마 재배> 책자 출간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최영근)은 더덕과 천마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농

가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책자 보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더덕·천마 재배 경영기술>책자(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결과와 외 부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300여부를 제작해 약초재배 동호회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했다.

☎063-839-0323.

경사가 심한 치밭에 적합한 새로운 시비기준이 제시돼 노동력 절감은 물론 차 앞의 상품성 향상과 수확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농업기술원 야생차연구팀은 하동군, 산청군 등 도내 녹차 재배지

시비방법은 질소는 봄에 50%, 여름에 25%, 가을에 25%의 비율로 3회를 주되 인산은 전량을 봄에 준다. 칼륨은 봄, 가을에 70%와 30%씩 각각 나눠 주면 된다.

도농업기술원은 3년여에 걸쳐 이같은 방법으로

## 녹차밭 시비기준 제시 질소 줄이고 인산·칼륨 봄에 늘려

30~40 이상이 비탈이 심한 야산에 있어 시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기존보다 질소비료 양을 72%나 줄이면서 차 품질은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근 발표했다.

새로운 시비기준에 따르면 10a(300평)당 질소 17kg, 인산 14kg, 칼륨 14kg, 유기질비료 700kg을 각각 봄·여름·가을에 나눠 줄 것을 권장한다.

시비한 차밭에서 생산한 첫물 차의 경우 총질소 함량과 탄닌성분이 각각 0.55%와 8.37%로 낮아졌고, 클로로필 성분은 9.44%로 적정치를 유지, 매우 우수한 품질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확량도 300평당 관행 923kg보다 11%나 많은 등으로 소득도 약 25%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055-750-6367.

## 5월 '버섯 재배기술 설명회' ARPC, 14~15일 예정

농림기술관리센터(ARPC)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5월 버섯을 테마로 한 2004농림기술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림기술관리센터와 한국버섯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버섯 재배농민들은 물론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버섯에 대한 실용적인 재배기술 및 건강상식 등을 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버섯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5월 14~15일로 예정된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제출됐던 농림기술과제 중 버섯 관련 연구과제와 일반

재배 활용기술 등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 버섯 사진전시회, 버섯요리강습 및 시식, 상품판매 등을 함께 진행, 소비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기술관리센터 조영우 연구원은 “웰빙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식품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버섯을 주제로 한 농림기술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설명회는 학술발표회 이외에도 상품전시 및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 향후 버섯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농가에 천적구입 지원 농진청, 111곳선발 300만원씩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때맞춰 농가 천적공급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천적 생산업체들의 비약적 성장에 힘입어 이들 민간 업체에서 천적을 구입해 농가에 보급하는 생물적방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시설채소와 과수농가 등을 대상으로 3,000평

(시설하우스 15개동 안팎) 단위로 전국 59개 시·군, 111곳을 선발, 1곳당 300만원씩 천적 구입비를 지원한다.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등 토착천적은 물론 콜레마니진디벌, 칠레이리움애 등 외래천적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담당 혹은 채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유기물함량 3% 이하 완숙보다 미숙한 퇴비 '효과'

매년 반복되는 농사로 잃어버린 토양의 지력회복을 위해서는 객토작업과 벗짚넣기, 토양개량제 살포 등의 적기 작업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농토에 퇴비를 사용할 때 먼저 목적을 결정한 후 퇴비의 성질과 토양특성, 재배작물을 모두 고려해야 퇴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양의 유기물함량이 3% 이하인 토양에 퇴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완숙된 퇴비보다는 다소 미숙된 퇴비가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 떼알구조를 만드는 토양미생물의 흡착물질 분비량을 많이 한다.

특히 밭토양에서는 작물을 바로 심지 않을 경우 미숙퇴비를 사용하면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토양내 발효를 통해 흙의 영양공급은 물론 물리성까지 개선할 수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강일성 작물환경담당은 “퇴비사용량은 먼저 자기 토양과 퇴비의 비료성분 함량, 작물의 양분 요구량을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유리물퇴비를 사용해야 하나 부득이 우분이나 돈분퇴비를 사용할 때는 인산함량이 높은 반면 작물의 인산 흡수량은 적기 때문에 퇴비를 작물의 인산 요구량만큼만 주고 질소성분은 다른 자재로 보충해 주어야 작물의 영양불균형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